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

—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최 애 순**

요약

본 연구는 한국문학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공포’가 바로 정신분석의 도입과 함께 본격문학의 정신병으로 귀환하였음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신분석 비평으로 논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분석’의 도입 자체, 혹은 ‘정신의학’의 도입과정과 문학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 내의 인물들을 정신분석하며 비평하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담론의 지형 안에서 정신분석(정신의학)의 도입이 어떻게 문학에 들어가서 한국 ‘공포’의 계보를 있게 되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의 ‘장화홍련’으로 대표되던 여성 원귀의 자리를 차지하는 공포대상이 1950년대를 거치고 1960년대가 되면 ‘정신병자’로 옮겨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정신병자’는 금기와 격리의 대상이었고, 이들이 공포 코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이다. 그만큼 1960년대 정신병과 정신병원은 사람들에게 거부, 금기, 억압의 대상이었다.

1960년대 한국문학에서 공포소설 장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개인의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정신분석과 사회적 원인으로 공포에 시달리는 정신병 환자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따라서 1960년대 ‘공포’는 오히려 본격문학 쪽에서 종종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인물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정신분석은 ‘정신의학’과 함께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271)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로 수용되기 시작한다. 1960년대 문학 연구자들이 이청준, 최인훈, 서정인, 김승옥과 같은 1960년대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할 때 ‘정신분석’ 비평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정신병’,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6년 프로이트의 죽음을 맞아 1960년대 본격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정신분석이 한국문학에 개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정신분석 혹은 정신병 환자로 지목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방 후 전쟁을 겪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문학의 장르에서 ‘공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정신분석’의 영향 때문이라 보고, 공포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죄의식과 같은 무의식이라든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이청준의 『퇴원』(1965), 『소문의 벽』(1971), 『황홀한 실종』(1976), 『조만득씨』(1980) 등 정신병원 환자가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주제어: 1960년대, 정신분석, 정신분석 치료, 이청준, 전깃불, 공포, 공포 코드, 정신병, 신경증, 정신병원, 정신의학, 진술 공포증, 정상, 비정상, 격리, 퇴원, 소문의 벽, 황홀한 실종, 조만득씨

목차

1. 서론
2. 정신분석의 도입과 신경증의 대두- 치료 대상으로서의 ‘정신병자’
3. 위계양 치료를 받는 신경증 환자와 유년기적 경험-『퇴원』(1965)
4. 1960~1970년대 전깃불 공포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소문의 벽』(1971)
5. 『황홀한 실종』의 정상과 비정상의 격리와 공포 코드의 전환
6. 결론: 정신병자의 귀환과 공포 코드의 형성

1. 서론

한국 공포영화사를 쓴 백문임은 한국 공포의 전형으로 여귀가 각인된 것은 『월하의 공동묘지』, 『여곡성』, 『두견새 우는 사연』 등의 공포영화가 만들어지던 1960년대부터라고 한다.¹⁾ 1960년대 이전에는 두 편밖에 없던 공포영화가 1960년대가 되면 눈에 띄게 많아진다고 한다. 가정비극이었던 『장화홍련전』이 공포영화로 변형된 것도 1960년대 이후라고 한다.²⁾ 1960년대 이후 초자연적인 여귀가 등장하는 공포영화가 활발히 만들어지는 동안, 문학에서 공포소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장화홍련전』으로 대표되던 머리 푼 여귀도 마치 자취를 감춘 듯 증발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낯섦’, ‘공포’ 등과 같은 공포 코드는 존재한다. 한국문학의 공포 코드는 시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자연적인 여성 원귀 유령과 서구의 정신분석으로 가라앉은 억압된 무의식이 혼재하고 있었던 1960년대 공포 코드의 전환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근대적인 머리 푼 여성 원귀들이 출현했던 『장화홍련전』이나 『아랑사또전』의 초자연적인 귀신은 1960년대로 오면 한국문학에서 자취를 감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문학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공포가 정신분석의 도입으로 인해 ‘정신병’으로 귀환하였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신분석 비평으로 논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분석’의 도입 자체, ‘정신의학’의 도입과정과 문학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 내의 인물들을 정신분석하며 비평하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담론의 지형 안에서 정신분석(정신의학)의 도입이 어떻게 한국 문학과 결탁하여 한국 ‘공포’의 계보를 잇게 되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의 ‘장화홍련’으로 대표되던 여성 원귀의 자리를 차지하는 공포대상이 1950년대를 거치고 1960년대가 되면

1)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여귀로 읽는 한국 공포영화사』, 책세상, 2008, 111-136면 참조.

2)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여귀로 읽는 한국 공포영화사』, 책세상, 2008, 97면 참조.

‘정신병자’로 몰아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신병자’가 공포 코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이다. 그만큼 1960년대 ‘정신병자’는 사람들에게 거부, 금기, 억압의 대상이었다.

본 논문은 공포를 주는 대상이 초자연적인 귀신(시체)에서, 전깃불로 상징되는 권력, 그리고 귀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악마, 시체(죽은 자의 귀환), 흡혈귀와 같은 초자연적(환상문학의) 요소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이다.³⁾ 근대 공포 장르에서 악마, 흡혈귀, 귀신, 유령과 같은 것들은 무의식 속에 자리했던 죄의식의 일종이며, 억압된 것의 귀환으로 해석된다. 1960년대 한국문학에서 공포소설 장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개인의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정신분석과 사회적 원인으로 공포에 시달리는 정신병 환자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1960년대 ‘공포’는 오히려 본격문학 쪽에서 종종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인물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정신분석은 ‘정신의학’과 함께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다. 연구자들이 이청준, 최인훈, 서정인, 김승옥과 같은 1960년대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할 때 ‘정신분석’ 비평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정신병’,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⁴⁾ ‘정신의학’의 도입과 함께 수용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의학뿐만 아니라, 비평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상계』나 『현대문학』과 같은 잡지에서 정신분석 비평 이론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음을 알 수 있다.⁵⁾

3) 토도로프, 이기우 역, 『환상문학서설』, 한국문화사, 1996, 288면 참조.

4)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청준 소설을 예로 들어 한국 공포의 발달과 억압 양상 중 한 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차후에 최인훈, 서정인 등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강박증, 신경증에 시달리는 인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5) 원형갑, 「해석적 비평의 길」, 『현대문학』 1960.4; 원형갑, 「해석적 비평의 길 (하)」, 『현대문학』, 1960.5; 원형갑, 「解釋的 批評의 길-4. 精神分析的 批評과 解釋的 批評」, 『현대문학』, 1960.6.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는 달리, 실제 작품 분석에서 정신 분석 비평을 적용한 것은 훨씬 뒤이다. 신경증을 다룬 소설은 많지만 정신병원을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마치 정신병원에 대한 언급은 암묵적 ‘금기’처럼 한 시대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을 겪고 그 상흔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4·19를 경험한 1960년대 작가들의 이중 트라우마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정신병’으로 표출된다. 문학에서 정신분석 비평은 등장인물들의 정신병적 증후와 트라우마를 분석하는데 용이해서 도입된다. 1960~1970년대 공포문학을 접할 수 없었던 것은 초자연적 공포가 ‘정신병’으로 대체되어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억압되었던 정신병자는 공포 장르의 괴물로 현현하게 된다.⁶⁾ 이청준 소설에 ‘정신분석 비평’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⁷⁾ ‘정신분석 비평’이 활발히 전개되고 담

원형갑은 『해석적 비평의 길』로 1962년 제 7회 평론 부분 현대문학상을 받는다. 최재서, 『문학연구 방법론 서설』, 『현대문학』, 1961, 4-5. 최재서 역시 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해 1, 2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1960년대는 정신분석을 비롯한 새로운 비평 방법이 도입되어 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구축해 나가던 시기였다. 『현대문학』에서 문학비평 방법 중 하나로 정신 분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면, 『사상계』에 연재된 정신분석 관련 글들은 주로 정신의학 분야의 치료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사상계』에 실린 정신분석 관련 글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6) 미셸 푸코는 고전주의에 감금되고 억압되었던 것이 그 다음 세기에 담론으로 형상화되면 풀려난다고 한다. 그러나 18세기말에 풀려나는 이미지가 17세기에 없애려고 시도했던 이미지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 이미지는 사람들의 감정, 욕망, 상상력에 자리를 잡아 인간 욕구의 기이한 모순, 욕망과 살해, 경멸과 굴종 사이의 공조 관계를 솟아나게 한다고 한다.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4 3쇄, 570-571면 참조) ‘정신병자’가 한국 공포 장르의 코드로 등극하게 된 데에도 ‘정신병자’를 괴물로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 숨은 공모자들, 지배 권력에 굴종하고 동조하는 ‘소문’을 생성하는 자들이 있었다.
- 7)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 비평을 처음 시도한 것은 문학쪽이 아니라 의학쪽에서였다. 이청준 소설의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정신분석 비평을 시도한 이는 정신의학 프로이트 전공의인 조두영이었다. (조두영·최종배, 『이청준 초기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신경분석』, 1996) 이후 조두영은 『프로이트와 한국문학』(일조각, 1999)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며, 문학쪽에서 정신분석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다. 그러나 이청준 소설이 창작된 1960~1970년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들어오긴 했

론화되자 그동안 억압되었던 신경증 환자나 정신병자가 감금에서 풀려나 공포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1956년 프로이트의 죽음을 맞아 1960년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정신분석이 한국문학에 개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해방 후 전쟁을 겪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문학의 장르에서 ‘공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정신분석’의 영향 때문이라 보고, 공포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죄의식과 같은 무의식이라든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경증이나 정신병 증상을 소재로 다룬 소설과 그것을 정신분석학적 비평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정신의학 치료 과정을 다룬 소설은 거의 없다. 이청준 소설은 정신분석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에 ‘정신분석 치료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본 논문은 이청준의 『퇴원』(1965), 『소문의 벽』(1971), 『황홀한 실종』(1976), 『조만득씨』(1980) 등 정신병원 환자가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신병원 환자가 등장하는 작품을 통해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공포가 초자연적 귀신에서 정신병자로 옮겨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지만, 실제 비평에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다. 정신분석학회나 분석학회, 신경정신학회에서도 주로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의들로 채워졌고, 1999년 조두영이 프로이트와 한국문학을 접목시킨 이래로, 이승준의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분석 연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현대소설연구』 17, 2002. 12, 347-367면)을 시작으로, 김주연이 『프로이트의 문학 비평』을 『독일문학』(2004)에 실고 이후 이청준 소설 등에 관한 정신분석 비평이 활발히 개진된다. 우찬재,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불안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 33권 2호, 2005. 여름, 189-212면; 고귀옥, 『이청준 소설 작중인물의 정신병적 징후와 문학적 의미 연구-『병신과 머저리』, 『황홀한 실종』, 『조만득씨』를 중심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정관,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소설의 형식』, 『반교어문연구』 32집, 2012.2, 463-491면; 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꺼버질 수 없는 자서전』과 『소문의 벽』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바탕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0, 2016.9, 355-401면; 이광호,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시선과 광기의 정치학』, 『인문학연구』 제 43집, 2012.2, 207-228면.

2. 정신분석의 도입과 신경증의 대두 - 치료 대상으로서의 ‘정신병자’

‘정신병’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1930년 『매일신보』에는 「정신병과 신경병에 대한 오해와 공포」가 1, 2회에 걸쳐 실려 있다. 정신병과 신경병을 구분하여 주고 신경병은 정신병과 달리 가벼운 증상임을 알려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정신병과 신경병으로 구분하여 놓고도 대다수에게 만연할 수 있는 신경병이라는 용어보다는 ‘정신병’이라는 용어를 훨씬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신병, 정신병자는 1920, 1930년대에 신문기사에 종종 오르내렸으나 신경병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방화, 살인, 강도 등의 범죄와 연루된 사건에 정신병자의 소행임을 엮어서 정신병실에 입원시키는 기사가 종종 실려 있다. 1927년 5월에서 1927년 9월까지 『경무회보』에는 「犯罪と精神病理」라는 글이 연재되기도 했다. 살인, 방화, 범죄, 테러 등의 사건과 함께 오르내리는 ‘정신병자’에 대한 기사는 대중에게 정신병자로부터 간격을 두도록 했고 정신병자를 ‘격리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기사로 마주한 정신병자는 격리해야 할 대상, 혹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이미지였다.⁸⁾

정신분석과 정신치료도 이미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었다.⁹⁾ 「정신병자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별건곤』, 1930.7.1)라든가 「가정문화-외과적 수

8) 「물리적 정신병실, 사십여 명을 수용할 만한 병실 신축」, 『매일신보』, 1920; 「實母를 撲殺, 범인은 정신병자」, 『매일신보』, 1918; 「정신병자가 盜賊, 낮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까지 훔쳐」, 『매일신보』, 1922; 「단도 난자, 정신병자가 잠자던 중을」, 『매일신보』, 1923; 「방화 소녀 정복순은 총독부의원 정신병실에 수용」, 『매일신보』, 1924.6.27; 「처남집에 방화 정신병자가」, 『매일신보』, 1930; 「정신병자가 소아를 난타 생명이 위독」, 『매일신보』, 1930; 「제3세계에 사는 정신병자들, 천당가다 밋그러진 목사」, 『별건곤』, 1933.11.1; 「가해자는 정신병자, 사리원 로파 참살사건 범인, 방화혐의로 잡혔든 임성진」, 『동아일보』, 1923.4.17 등 이외에도 각종 범죄사건을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언급하는 기사가 넘쳐 난다.

9) 이동식, 「정신치료자의 인격」, 『신경정신의학』 6권 1호, 1967, 19-22면. 특히 19면 참조.

술로 폐결핵과 **정신병**을 고쳐」(『매일신보』, 1944)와 같은 글을 보면, 정신병에 대한 치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신병자를 외과수술로 고쳤다는 것은 현재의 의학상식으로는 모순이다. 처음부터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 아픈 몸으로 인해 신경증적 증상을 보이던 환자를 정신병자의 범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치료보다는 그런 용어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선에서 사용되었다.¹⁰⁾ 이동식에 따르면, 본격적인 정신분석 치료는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나서라고 한다.

해방 후 1950년대가 되어도 정신병자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¹¹⁾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좌우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때에 반공주의라는 명분하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사례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정신분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이로제’라는 용어가 급등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 『사상계』에는 정신의학 전문의인 이동식이 「정신의가 본 인생과 사회」라는 제목 아래 「사회 **노이로제**의 시대」(1)(『사상계』 127호, 1963.11), 「**노이로제**와 친자관계」(3)(1964.1), 「**노이로제**와 부부관계」(5)(1964.5), 「종교의 **정신분석**」(6)(1964.6), 「**노이로제**에 걸린 학생들」

10) 이동식, 「정신치료자의 인격」, 『신경정신의학』 6권 1호, 1967, 19면.

11) 방인근의 소설 『狂女の 딸』(『방랑의 가인·승방비곡 기타』 민중서관 전집 7, 민중서관, 1959)은 전쟁기에 아버지가 이북으로 납치되고 폭격으로 서울 집이 무너진 모녀가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부산에서 딸이 회사에 다녀 생계를 이어가거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정신병에 걸리고 만다. 부산에서 정신병원을 찾아갔으나 달리 차도가 없어 서울로 환도한다. 딸은 결혼하고 태기가 있어 산부인과에 다니는데 그 의사가 이북으로 납치된 아버지와 닮아 있음을 알고 정신병에 걸린 어머니를 그 병원(다시 말하며 산부인과)에 데리고 간다. 차도가 있을 거라고 친절히 말해주는 아버지를 닮은 의사와 함께 마치 진짜 아버지인 것처럼 꾸며서 연극을 하여 과거 기억을 되돌리고 차차 병세가 호전되어 간다는 이야기이다.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치료 방법이다. 『狂女の 딸』은 1950년대 전쟁기 피난살이에 쓰여진 작품으로 이때까지도 국내에 정신분석 치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정신분석 치료는 이동식이 유학하고 돌아온 뒤인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7)(1964.7), 「꿈이란 현상과 노이로제」(8)(1964.8), 「내부독재와 패배의식 - 독재를 갈구하는 사상 노이로제」(10)(1964.10) 등 11회에 걸쳐 노이로제에 대해 연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경증이라는 용어 대신 노이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신의학이 도입됨으로써 광범위하게 쓰이던 '정신병'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신경증적 증상인 '노이로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이로제'라는 용어가 마치 유행어처럼 만연하고, 소설에서 노이로제 환자들이 종종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프로이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상계』 1956년 9월호에 프로이트 특집이 실린 이후로 정신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된다. 1956년 9월의 김태오의 「프로이트와 精神分析學」, 이동식의 「프로이트 이후의 精神分析學」등을 필두로 하여, 1960년 5월에는 이동식의 「實存主義와 精神分析學」, 1961년 7월 윤태림의 「近親殺傷의 精神分析」, 1963년 9월 최신해의 「천재의 精神分析」, 1963년 11월 이병윤의 「檀君神話의 精神分析」 등 꾸준히 '정신분석'에 관한 글이 실리고 있다. '정신분석'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정신분석학 이론이 도입될 때, '정신분석' 관련 글을 실은 이들은 문학 비평가가 아니라 정신의학 전문의였다. 해방 후 창설된 신경정신의학회가 1955년 명칭을 바꾼 이래, 정신분석학회가 1985년 설립되고, 1998년에야 현대정신분석학회가 생긴다. 1985년 정신분석학회까지만 해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1998년 현대정신분석학회에 가서야 비로소 정신분석 비평가인 영문학 전공자도 함께 하면서 '정신분석 비평'이 국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정신분석 비평'이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 비평을 한국문학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도 프로이트를 전공한 정신의학 전문의였다. 조두영은 손창섭, 이청준의 소설 등을 중심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한국문학에 적용했다.¹²⁾

정신분석의 도입에서 『사상계』가 이동식을 중심으로 한 정신의학 자체

12) 조두영·최종배, 「이청준 초기 작품의 정신분석적 고찰」, 『신경분석』, 1996; 조두영, 『프로이트와 한국문학』, 일조각, 1999.

의 ‘증상’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현대문학』에서는 정신분석 비평과 같은 ‘문학비평 방법’으로서의 정신비평에 관한 글들이 실렸다. 정신분석 비평이 심리학 비평의 한 방법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비평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작가나 비평가, 문학 분야에서 정신분석 비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신분석은 의학 쪽으로 들어와, 실제 문학비평과의 접목도 정신의학 쪽에서 먼저 시도했다. 신경정신학회를 비롯하여 정신분석학회도 의사들로 채워졌고 문학가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무렵이 되어서였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노이로제의 시대라고 규정했던 4·19 이후의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신분석 치료와 문제를 거론할 때¹³⁾, 문학 쪽에서는 오히려 정신분석에 대한 거부감이 일었던 것이다.

이청준은 바로 정신분석 치료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와 강압적인 의사의 진술 요구에 거부감을 갖고 치료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하여, 정신분석 치료가 실제 도입되던 시기에 정신분석이 우리 사회와 충돌을 일으키는 과도기적 과정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정신분석 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에 억압된 공포와 돌출된 증상 사이에서 빚어진 충돌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3. 위계양 치료를 받는 신경증 환자와 유년기적 경험 - 「퇴원」(1965)

이청준 소설에서는 끊임없이 정신병과 신경병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소설 속 인물들은 신경증을 앓고 있는 자들이다. 불안 신경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1960년대 작가들에게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인

13) 이동식,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일지사, 1974; 이동식, 『현대인과 노이로제』, 동서문화원, 1972.

물을 대하면서 정신의학의 도입과 함께 신경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이청준이 등단했던 『퇴원』이 실렸던 잡지 『사상계』에서 ‘노이로제’라는 용어가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이동식에 의해 소개되고 유입된다.¹⁴⁾ 이청준이 등단작으로 신경증 증상과 그에 대한 치료를 다룬 『퇴원』을 쓴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이 드나들던 서울대학교 병원을 배경으로 신경증 환자를 내세운 작품을 첫 작품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서정인은 그보다 먼저 『사상계』에 『후송』(1962)을 발표한다. 같은 해(1962년)에, 최인훈은 『자유문학』에 중편소설 『구운몽』을 발표한다. 1962년 동시기에 발표된 『후송』과 『구운몽』은 아무런 병명이 없는데도 이상 징후에 시달리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후송』의 성중위는 이유도 없이 이명이 들리고¹⁵⁾, 『구운몽』의 독고민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반복적으로 꾀다. 이청준의 『퇴원』은 이들보다 늦게 신경증 증상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들이 4·19와 5·16을 겪고 나서 거의 바로 발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퇴원』은 이청준이 군대에서 돌아와 황폐하고 무기력한 날을 보내다가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가 데뷔작 『퇴원』을 쓴 60년대 중반 무렵은 5·16군사혁명 이후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하여 사회 일반, 특히 젊은 층들은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지내던 시기였다. 게다가 나는 개인적으로도 좀처럼 헤쳐 나가기 힘든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노모를 비롯한 고향집 식구들

14) 『사회 노이로제』, 『개인 노이로제』 등 ‘노이로제’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연재한 글들에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설명하고 있다. 후에 『사상계』에 실린 이동식의 글들은 『현대인과 노이로제』(동서문화원, 1972(1976 3판 발행))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15) 서정인의 『후송』에도 노이로제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죽음이 도사리고 앉아서 내 방비가 약한 틈을 타서 내게 달려들 것만 같아요. 그러니 나는 항상 주의를 게을리 할 수가 없지요. 무심히 지나다가도 문득 긴장합니다. 까닭 모를 긴장일요.”/ “노이로제군.”/ “무엇인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육감에 첫째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지요.”(서정인, 『후송』, 『강』, 문학과 지성사, 2007, 14-15면) 『후송』은 1962년 『사상계』 신인문학상 당선작이다.

이 수년째 정처(定處)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가운데에 엉터리로 근근이 대학 2학년 과정을 끝낸 나는 헛시늉으로나마 더 이상 학교를 계속해 나갈 방도가 없어 공밥과 시간을 벌기 위한 마지막 자구책으로 군대를 자원해 들어갔다.(이청준, 작가 노트 『황폐한 젊음의 회복을 꿈꾼 『퇴원』』, 『소문의 벽』 중단편전집 7, 열림원, 37면)

이청준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에 대해 ‘구체적인 병명’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퇴원』의 ‘나’는 U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딱히 뚜렷한 증상이 없고 병명을 알 수가 없다. ‘신경증’의 일종이지만 정신병원이나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U병원 내과에서 위궤양 치료를 받고 있다. U병원은 이청준의 다른 소설 『황홀한 실종』에도 나온다. 배경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당시 실제 병원과 대조해 볼 수 있다. 가령, 『퇴원』의 U병원은 탐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유추되며 1960년대 정신신경과가 신설된다. 이때 정신신경과 이동식 박사는 『사상계』에 정신분석 관련 글을 연재한다. 이청준은 『퇴원』의 해설에서 군에서 제대하고 갈 곳이 없어 ‘대학병원’¹⁶⁾에 입원한 친구를 매일 찾아갔던 기억을 이야기한다. 1965년 발표된 이청준의 등단작인 『퇴원』은 신경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신경과, 혹은 신경증이나 정신병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그의 병명이 위궤양이 아니라 신경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¹⁷⁾

16) 『퇴원』의 U병원은 탐시계가 상장이었던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설에 나오는 입원한 친구를 방문한 대학병원 역시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으로 유추된다.

17) 이동식은 한국에서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이청준의 『퇴원』이 발표될 무렵까지도 정신병 환자와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것을 숨기거나 입 밖에 내지 않고 마치 금기처럼 여겼다. 이동식은 1964년 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치료자의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치료자의 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정신치료자의 인격』, 『신경정신의학』 6권 1호, 1967, 19면). 그래서 증상은 있는데 병명이 없는 환자들이 모두 정신과나 정신병원이 아닌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작자들은 도대체 나를 **위궤양 환자**로 믿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벌써 모든 것을 짐작하고도 시치미를 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18면)
 “**위궤양**이 싫으시담 더 멋진 병명을 붙여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자아망실증 환자라든지…….”(31면)

미스 윤과 준은 ‘나’의 병명에 대해 공모해서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각각 알면서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의학과 혹은 정신병원이 처음 신설될 때부터 현재까지도 신체적 증상의 병명이나 병원 출입은 누구나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것에는 거부감을 표출하고 정신병원 환자들에 관해서는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¹⁸⁾ 『퇴원』은 정신의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의 다른 병을 핑계로 신체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정신병, 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병원이 국내에 들어와 스트레스나 신경증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이청준 소설은 병원의 정신의학과, 혹은 정신병원을 직접 등장시켜 ‘정신분석’ 치료 과정이 국내에 어떻게 들어왔고 인식되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의 증상의 원인을 찾는 과정은 주로 ‘개인의 가족사’에 치중되어 있다. 『퇴원』은 ‘개인의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로 인해 광 속에 갇혀서 엄마와 누이의 속옷을 모두 찢어버렸던 기억을 끌어 올린다. 그때 아버지가 비추던 전깃불은 이후 ‘내’가 사회에 적응하려고 현실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옥죄어 온다. 군대, 대학시절의 데모, 한국군 월남 파병 환송식¹⁹⁾까지 모든 사회적 상황을 겪을 때마다 유년시절의

이청준의 『퇴원』은 바로 정신분석 도입기의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8) 1960년대 ‘정신분석’ 치료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신경증을 정신병과 구분하려 하고, 구체적인 병명과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정신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개인의 가치가 낮아 정신치료 자체가 어렵고, 우리나라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정신치료의 부정적 요소가 된다고 한 정신과 전문의의 연구들이 있다.(이동식, 조두영)

아버지의 전깃불이 끊임없이 ‘나’를 비추며 따라 다닌다. 『퇴원』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방황하는 젊은이를 그리며 유년기의 아버지가 비추던 전깃불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위계양 증상으로 나타나고 병명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원인은 규명되며 퇴원도 가능하다.

『퇴원』에서 전깃불에 얽힌 개인적인 공포는 『소문의 벽』에서 전쟁과 심문관의 심문을 거치며 ‘사회적’ 공포로 전환된다. 유년기에 관한 이야기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이청준은 정신분석과 충돌하는 1960·1970년대의 사회적 공포를 이야기한다. 그럼으로써, 전깃불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공포와 충돌하는 정신분석이나 정신병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퇴원』의 ‘나’는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분석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신경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치료하며 ‘신경증’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있는 반면, 『소문의 벽』의 박준은 정신병원에서 신경증(노이로제)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은 정신분석 치료 대상자이다.

19) 천상병 시인의 월남 파병에 얽힌 일화가 그의 전집에서 천승세가 쓴 서문에 나온다. ‘월남파병’에 관한 시인으로서의 느낌을 써 달라는 청탁에 거짓없이 썼는데, 문화부 기자가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순한 말로 수정해서 실었던 일화이다(천승세, 『평화만 쫓으다 날아가 버린 파랑새』, 『천상병 전집·산문』, 평민사, 1996, 2-3면 참고). 『소문의 벽』의 박준의 원고가 신문사 혹은 잡지사 편집실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도 작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글을 실을 수 없었던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청준 소설은 곳곳에서 기인이라 불렀던 천상병 시인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다. 천상병 시인에 얽힌 동백림 사건과 그의 생애는 작가들에게 1960~1970년대 젊은이들(혹은 작가들)의 불우했던 삶의 대변 혹은 상징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1960~1970년대 전짓불 공포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 「소문의 벽」(1971)

1) 정신병원 배경과 신경증 환자의 정신분석 치료 과정 대두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박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소문의 벽」에서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내용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소문의 벽」에 묘사된 정신병원은 대체 어느 병원인가. 이청준이 「소문의 벽」을 썼을 당시의 정신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하며, 정신병원에 수용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연구자는 없었다. 본 연구는 바로 그 부분을 ‘억압된 공포’라 보고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정신분석 치료 방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정신병원이 신설되던 시기에 문학사에서 정신병원과 정신병원 환자가 인물로 등장한 경우는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소문의 벽」은 다른 작가들이 직접적인 소재로 가져 오지 않았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정신분석 치료 과정 자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정신분석 도입기의 한국 문학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신병원 신설 外資 22만불等 確保」(『동아일보』, 1957.1.10)와 같이 1950년대 후반정신의학의 도입과 함께 정신병원이 증설 혹은 신설된다. 그럼에도 「퇴원」(1965)의 환자는 신경증을 앓고 있음에도 내과에 입원하고 있다. 「소문의 벽」(1971)은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환자가 등장한다. 일단 「소문의 벽」에 묘사된 정신병원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자.

나의 하숙집에서 얼마 되지 않은 산중턱엔 언제부턴가 이름없는 정신병원이 하나 자리잡고 있었는데, 나의 대뇌작용이 그제서야 그걸 기억해 낸 것이다.(「소문의 벽」, 『소문의 벽』 이청준 중단편소설 7, 열림원, 1998,

51면²⁰⁾)

3층 병실의 한 창문 **쇠창살**로부터 침대 시트를 총총 꼬아 만든 밧줄이 허영게 뜰 아래로 내려뜨려져 있었고, 바로 그 밧줄이 내려진 3층 병실에는 어느 틈엔가 환자 한 사람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없더라는 것이다. (『소문의 벽』, 52면)

‘정신병원’이 처음 등장하는 작품은 『소문의 벽』(1971)이다. 1960년대 신경증에 시달리는 등장인물은 많이 나오지만, 문학 작품에서 ‘정신병원’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마치 ‘정신병원’을 드러내는 것이나 ‘정신병’을 언급하는 것이 사회적 금기인 것처럼 1960~1970년대 소설에서 ‘정신병원’과 ‘정신병’은 등장하지 않는다.²¹⁾ 정신이상을 앓고 있는 인물만이 묘사될 뿐이다.²²⁾ 『소문의 벽』의 정신병원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고 이름 없는 정신병원²³⁾으로 창문이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다. 편안한 공간이라기보다 감금, 격리의 인상을 심어준다. ‘정신병원’이 문학

20) 이 논문에 등장하는 이청준 소설은 같은 책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이하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1) 조두영은 『프로이트와 한국문학』의 서문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아직도 정신분석적 문학 비평에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느낌이다.” “서구에서는 한때 정신분석을 실제로 공부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닌 자칭 전문가들이 얇은 지식을 가지고 예술가를 ‘정신질환자’로 몰던 때가 있어 그 반발로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정신분석의 도입이 늦었고 아직도 초기 안착단계에 있어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일 처지가 되지 못하니 문학예술과의 접목이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프로이트와 한국문학』, 일조각, 1999, 7면). 이청준도 작가가 독자로부터 정신분석 당하는 느낌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22) 최인훈의 소설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강박증이나 서정인의 소설에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등은 모두 신경증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23) 『소문의 벽』의 정신병원은 청량리 정신병원 아니면 국립정신병원으로 유추된다. 특히, 박준이라는 인물이 천상병 시인의 정신병원 입원 일화와 겹쳐지면서, 청량리 정신병원보다는 국립정신병원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주변에 하숙집이 있고, 출근하는 잡지사 『사상계』와 가까운 곳은 국립정신병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청준 소설 『조만득씨』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서도 정신병원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다.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보편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이나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주로 ‘공포’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여, ‘정신병원=미친 자=공포’가 공식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된다.²⁴⁾ 정신병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된 ‘언덕 위의 하얀 집’은 ‘유령의 집’처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우리 병원 환자들 중에 진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같이 병원을 빠져나가고 싶어들하지요. 하지만 환자의 경우는 달라요. 정말로 **미친 증세**에서가 아니라 미쳐 보이고 싶은 증세였지요. 말하자면 그런 노이로제의 일종이지요. 그래서 난 탈출연극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입원실로 **진짜 정신장애자들**하고는 다른 방을 정해 주지 않았겠습니까?([소문의 벽], 59면)

(……)김 박사는 우선 박준의 병세가 진짜 정신이상인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는, 진짜 **미치광이와 노이로제 환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박준에게서 볼 수 있는 **불안신경증이나 강박신경증** 같은 노이로제의 증상은 흔히 말하는 **미치광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진짜 정신병(분열증) 환자는 어떤 충격 같은 것에 의해 의식작용 전체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노이로제 환자는 어떤 일정한 사물에 대한 반응이나 사고의 과정에서 자신을 극복하지 못할 뿐(김 박사는 그것을 정신작용이 아니라 감정의 조화가 상실된 것이라 했다) 그밖에는 전혀 보통 사람과 다른 데가 없다고 했다. 노이로제 환자들은 대개 옛날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그 사건의 기억, 또는 그렇게 충격이 심하진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늘 되풀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괴로운 긴장감 같은 것을 지니고 있기 십상인데, 노이로제란 그

24) 푸코는 ‘공포는 보호시설의 필수불가결한 배역’이라고 한다. ‘수용에 대한 공포’는 오래전부터의 형상으로 이성과 비이성의 한계를 표시할 뿐 아니라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 억제하고 이성 자체에 대해 거리를 두게 하는 이중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4 3쇄, 『정신병원의 탄생』 중에서 738-742면 참조)

런 것들이 환자의 의식 밑바닥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가 어느 계기엔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심한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불안감 같은 것에 빠져드는 현상이라고. 가다가는 이 노이로제 환자 중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하는 식으로 신체적인 병식이 나타나기도 하나 그것도 사실은 해부학적인 병증이 아니고 모두 이 정신적 갈등에서 온 의사병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노이로제와 정신병은 그렇게 근본이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노이로제는 다만 일정한 부분의 **인격장애**에 불과한 질병으로서 그 장애요인을 찾아 환자를 납득시켜 주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박준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경우에 그의 의식심층에 숨어 있는 갈등의 원인을 좀처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소문의 벽〕, 87-89면)

『소문의 벽』에서는 정신병과 신경증(노이로제)의 구분에 관해 정신병원 의사가 설명해준다. 정신의학이 국내에 이동식을 필두로 하여 들어와 정신의학과, 정신병원의 신설이 확장되던 때, 식민지시기부터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었던 ‘정신병’이라는 용어와 ‘신경증’이라는 용어를 분리해서 설명함으로써, 전쟁 이후 1960년대 문학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신경증적 증상’에 대해 주목한다. 정신병과 신경증(노이로제)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정신병’ 환자는 미치광이, 정신이상, 미친 자, 정신장애자 등과 같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신경증 환자는 그런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경증 환자에 대해 사람들은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업살로 치부해 버린다. “그 친구, 작품 주인공들이 늘 그런 식으로 **병신스런 업살쟁이들**뿐이더니 이번엔 자신이 직접 그 주인공의 **업살**을 흥내내고 있는 게 아냐요?”(64면) 김박사도 박준이 실제로 미친 건 아니라고 했다. 신경증 환자는 업살쟁이이고 정신병자는 미치광이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청준 소설의 정신분석

치료 과정은 신경증 환자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든 미치광이 ‘정신병자’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지요. 뭐랄까, 무슨 진술 공포증이라고나 할까요. 도대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들진 않아요. 그리고 까닭없이 불안해하고 사람들 두려워했지요. 의사인 나까지도 말입니다.”(56면)

진술공포증이라는 박준의 증상과 자기진술을 통해서만 그 증세의 원인을 찾아 해소시켜야 한다는 김박사의 치료방법은 그러니까 서로 기이한 배반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90면)

박준은 과연 김 박사의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사정이 영 판판이었다. 박준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게 초췌해져 있었다. 이 며칠 사이에 벌써 보기 흉하도록 불쑥 튀어나온 광대뼈하며, 그 광대뼈 뒤로 불안하게 숨어 들고 있는 두 눈동자엔 진짜 광기 같은 것이 어리고 있었다.(136면)

『소문의 벽』은 정신분석 치료 방법과 충돌하는 환자의 증상을 보여준다. 정신병원에서 김박사의 치료를 받은 박준의 상태는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된다. 처음에는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떠돌고 다니다가 정신병원의 진짜 환자가 되자 자신을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한다. 『소문의 벽』은 의사의 진술 강요와 환자의 진술 거부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함을 선언하고 있다. 정신분석 치료 전문의들이 한국문학에 정신분석 비평을 시도하는 작업의 전제 조건은 늘 작가 개인에 얽힌 이야기였다.²⁵⁾ 조두영과 최종배는 이청준의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 한국문학을 분석하고 있는데,

25) 조두영·최종배, 『이청준 초기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하여』, 『신경분석』 제 7권 1호, 1996, 3-17면. 정신의학 전문의의 문학비평 방법으로서의 정신분석 비평에는 ‘작가 이청준의 개인사가 작품 분석 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5면 참조).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던 연구 방법이 작가의 개인사와 작품과의 연관관계이다.²⁶⁾ 이청준 소설의 진술공포증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언론탄압으로 인한 증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⁷⁾ 이청준은 1960년대 정신병원이야말로 ‘공포’의 공간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말하는 순간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현실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증상을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신문관이 되고, 신문관이 취조자가 되는 것은, 1960년대 ‘전짓불의 공포’를 고스란히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학에서 공포는 정신분석의 도입과 함께 억압되어 본격문학 속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2) 치료 불가능한 전짓불 공포와 ‘정신분석’에 대한 은유로서의 「소문의 벽」

정신분석 치료는 진술을 요구한다. 유년기의 기억, 과거의 기억, 개인의 경험을 모두 끄집어내어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유신 체제에서는 진술을 강요받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문 후유증으로 시위대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정신병원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거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에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분석과 정신병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

26) 조두영·최종배, 『이청준 초기작품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하여』, 『신경분석』 제 7권 1호, 1996, 5면.

27) 이청준은 『짜여지지 않은 자서전』을 처음에 『선고유예』라는 제목으로 1969년 『문예비평』에 연재하다 5·16이라는 금기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연재가 강제로 중단되었다고 한다(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 『짜여질 수 없는 자서전』과 『소문의 벽』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0, 2016.9, 359면). 더불어 강동호는 이청준 인물의 전짓불 공포로 인한 진술불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강동호, 같은 글, 374면 참조). 「소문의 벽」의 박준이 투고한 소설이 신문사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검열이 있던 시대에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분석은, 진술 불가능한 작가나 환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졌을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작가 이청준 역시 5·16이라는 금기어를 사용했다가 연재가 중단된 적이 있다. 1960~1970년대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신경증 환자가 정신병 환자로 취급받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진짜 정신병자가 되어 가기도 했다. 사회 행려자, 거리의 부랑자 등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되던 이들을 잡아서 정신병원에 가두기도 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상병 시인에 얽힌 일화이다. 『소문의 벽』은 바로 1970년대 유신 체제의 알레고리, 즉 천상병 시인에 얽힌 일화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죽은 줄 알고 동료들이 유고시집까지 냈는데 거리의 행려병자로 분류돼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천상병 시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고문을 받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그의 모습은 『소문의 벽』의 박준과 닮아 있다.

『소문의 벽』의 박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심문관, 고문관의 경험을 진술하는 순간, 자신이 위협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분석은 그 자체로 강압이고 공포일 수밖에 없다. 정신병원, 환자, 전짓불 공포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인물들이 겪는 신경증적 공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설가인 박준의 연재가 중단되어 그의 소설이 편집실의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 시인 천상병이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후 심한 신경증을 앓았던 것은 모두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소설가 박준과 시인 천상병 모두 주변에서 보이지 않다가 발견된 곳이 정신병원이다. 가족들도 모르게 거리의 행려병자로 분류되어 강제입원 시킬 수 있었던 곳이 정신병원이었던 것이다.

박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젊은 작가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던 그가 웬일인지 이 1, 2년 동안은 통 작품을 내놓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꼴이 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나

의 예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61면)

“안 형은 요즘 혹시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은 일이 없소?”(62면)

사내는 머리가 돌아 버린 **광인**이었다. 그가 정말 광인인지 아닌지 그 때로선 아직 확실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여튼 사내는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머리가 돈 사람이라고 말했다.(45면)

“도대체 형쨌 무슨 일로 그렇게 밤거리를 쫓기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형씨를 쫓아온 건 어떤 사람들이냐구요?”(46면)

그냥 응답이 없을 뿐 아니라 방을 들어온 다음부터는 오히려 사내 쪽에서 내가 수상쩍게 여겨지고 있는 눈치였다. 나를 거꾸로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어떤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 **공포** **감** 때문에 나의 말을 귀담아들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46면)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요. 제발 여기서 나를 나가게 해주시요. 당신 이라면 아마 내가 이곳을 나가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요.”(136면)

정신분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1960년대는 노이로제에 시달려도 정신과를 찾거나 정신병원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정신병원은 치료를 위해 제 발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거리의 부랑아나 행려병자, 사회 부적응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곳이었다. 『소문의 벽』은 박준의 정신분석학적 치료 과정을 통해 1970년대 유신 체제 하의 젊은이들의 고문과 감금, 거짓 자백, 사상 검열, 그로 인한 공포정치와 신경쇠약 증상 등을 보여준다. 『소문의 벽』이 다른 작품들과 달리 우리에게 더 두렵고 낯선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그들을 정신병자로 내몰고 기피하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손가락질 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소문의 벽』에서 ‘전깃불 공포’는 『퇴원』의 유년기적 경험을 넘어서서 6·25전쟁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적군 색출, 4·19 광장의 대학생의 고문과 자백 강요, 천상병 시인의 동백림 사건과 정신병원 입원 등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으로 얹혀 들게 된다.²⁸⁾ 『소문의 벽』은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신경증을 앓았던 1960·1970년대 세대들의 은유적인 외침이다.

어떤 청년운동단체의 간부직원인 G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이상한 환상에 빠져든다. 집으로 돌아오는 좌석버스 속에는 한결같이 무겁게 입을 다문 시민들이 피곤한 어깨를 기대고 앉아 있다. 그런데 G는 그 무거운 침묵과 얼굴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의 어깨 뒤에서 갑자기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다. …… G는 한동안 그런 환각에 빠져 들다 이번에는 느닷없이 어떤 불온스런 음모의 피의자로 체포당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그 음모사건에 관해 신문관의 취조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문관은 G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음모사건이 모의되고 있었으며, 그것과는 G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는다. G는 다만 자신의 생애에 관해 그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 음모사건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않거나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식 없이 진술하라는 것이다. G 역시 차라리 그 편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는 도대체 자신이 어떤 음모를 꾸민 기억이 없다.(……) 그러나 G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신문관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122-123면)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28) 우찬제는 『퇴원』에서 강고한 가부장권의 폭력이 문제가 된다면, 중편 『소문의 벽』에서는 가족적 상황과 사회 역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문제시한다고 한다. 『소문의 벽』은 전깃불 신호의 중층적 문제성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한다.(우찬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불안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 33권 2호, 2005, 여름, 197면)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소문의 벽』, 『소문의 벽』, 열림원, 111면)

6·25가 터진 후 3개월 남짓 지난 1950년 가을 전라남도 작은 포구의 마을은 국방군인지 지방공비인지 알 길 없는 마을 사람들은 전깃불의 환한 빛 때문에 어느 편인지를 가려내지 못하여 무참한 죽임을 당하고 만다. 박준의 ‘전깃불 공포’는 정신분석으로 원인을 알아낸다고 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60년대 당대에도 언론의 압박과 감시, 신문관의 취조, 암묵적인 침묵의 동의 등 전깃불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작가들은 1950년대 전쟁의 후유증에 1960년대의 사회적 현실이 겹쳐지면서 신경증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불안, 강박 신경증은 과거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현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청준은 1960년대 정신분석을 신문관에게 취조당하는 것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신분석 당하는 것을 거부할수록 1960년대 작가들은 직접적으로 주제를 표현하기보다 알레고리나 비유적, 암시적, 상징적 기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일차적인 독서 뒤에 숨으려 한다. 작가가 숨을수록 독자는 더욱 더 정신분석 비평을 강요받게 되고 결국 1960년대 문학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신분석 비평 방법으로 읽히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다.

1960년대 정신분석 치료의 본격적인 도입은 ‘공포’의 발달사와 긴밀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1960년대 ‘전깃불의 공포’는 정신분석의 도입과 함께 신경증적 증상으로 떠올랐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시대적 상황 등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으로 얹혀 있어, 개인적인 과거사만을 묻고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분석 치료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의 한 축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치료는 불가능했고 인물들의 신경증적 증상은 계속되었다.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정신이상자들은 후에 두렵고 이물스런 괴물로 변하여 ‘공포’ 대상으로 현현하게 된다.

『소문의 벽』에서 박준의 소설을 서랍에 넣어 둔 잡지사 편집장 안형은 작가가 시대의 요구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어떤 진실을 목도하고도 그것을 다른 이해관계나 관습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작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청준은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벌거벗은 사장님』이라는 박준의 소설을 삽입한다. 어떤 진실을 목도하고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 대신 박준의 소설은 편집장의 서랍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만다. 『소문의 벽』이 여러 갈래의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이다. 이청준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소문에 휩쓸리는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권력을 휘두르는 ‘전짓볼 공포’였다고 역설한다.

천상병 시인은 동백림 사건에 얽혀서 고문을 받고 거리의 행려자로 분류돼 죽은 줄 알고 유고시집까지 냈다가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²⁹⁾ 『소문의 벽』의 박준은 천상병을 모델로 한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유사하다.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나 사회의 부적응자는 모두 비정상, 정신이상으로 간주하고 정신병자로 내몰았던 것이다.³⁰⁾ 정신의학 전문의 이동식은 『사상계』에 정신분석 치료에 관한 글에서 ‘개인 노이로제’가 치료 가능한 영역이고, ‘사회 노이로제’는 치료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한다.³¹⁾ 이청준의 작품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29) 천상병 시인이 거리의 행려병자로 분류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6개월 동안, 지인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시집 『새』를 펴낸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천상병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다. 이때 천상병이 입원했던 병원은 서울시립정신병원이 라고 보통 그의 전집이나 시선집에 나와 있는데, 청량리 정신병원에 관한 설명에서도 화가 이중섭과 시인 천상병이 입원했던 병원임을 내세우고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천상병이 쓴 산문집에서 그 스스로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게 71년 7월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청량리 정신병원이 아닌 서울 시립 정신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절망과 인내의 시절』, 『천상병 전집-산문』, 평민사, 1996, 39면; 『들쭉처럼 산 '이순(耳順)의 어린왕자』, 『천상병 전집-산문』, 평민사, 1996, 45면).

30) 이동식, 『社會 노이로제 시대』, 『사상계』 127호, 1963.11.

모두 정신병원의 권위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실패하고 만다. 이 청준은 치료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그림으로써, 인물의 정신이상의 원인이 무의식의 근원인 유아기의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깃불 공포라는 사회학적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문의 벽』은 모든 원인을 한 개인의 정신문제(노이로제)로 돌려 버리는 정신분석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 시대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개인에게서, 모든 원인을 유년기 성장이나 개인의 가족사로 돌려버리고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분석을 고문에 비유하여, 정신병원 의사와 고문실에서 신문관을 동일시한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박준은, 정상인 사람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현실의 반영이다. 정신병원에 들어 온 사람은 개인이 원인이기보다 데모하다 붙잡혀서 고문으로 정신이상자가 되어 들어 온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이다. 멀쩡하던 사람을 사회가 바보로 만들었는데, 계속 개인의 내력과 진술을 강요하는 신문관(정신분석)에 대한 분노는, 언론검열이나 유신정권으로 침묵하던 시대에 대한 소리 없는 항변이기도 했다.

이청준의 ‘전깃불 공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과정과 대치되며 충돌하고 있었다. 원인이나 해결책을 개인의 유년기적 경험 혹은 가족사에서 찾으려는 정신분석 치료 과정은 1960~1970년대 개인, 가족, 사회, 역사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사회 노이로제에 시달리던 이들을 더욱 옥죄어 격리시키고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가 극복되어야만 사라지는 ‘전깃불 공포’는 진술을 강요하면서도 진술을 억압하는 상황으로 인해 치료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소문의 벽』에서 신경증이었던 환자는 『조만득씨』에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다. 이청준은 언론 억압의 공포를 정신분석 치료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개인의 기억을 다 꺼내서 진술하라고 강요받지만 ‘전깃불’ 이야기만 되풀이해서 신문관

31) 이동식, 『社會 노이로제 시대』, 『사상계』 127호, 1963.11.

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소문의 벽』은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5. 「황홀한 실종」의 정상과 비정상의 격리와 공포 코드의 전환

『황홀한 실종』은 동물원 우리에 빚대어서 우리 사회의 ‘쇠창살’ 안과 밖을 이야기한다. 동물원 사자 우리, 은행의 창구, 마음의 쇠창살에 관한 알레고리이다. 이청준의 정신병을 다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U병원, 간호사, 대학시절 데모하던 장면이다. 이청준 인물의 내면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라 볼 수 있다. 『황홀한 실종』은 정상에서 비정상, 안정에서 불안정한 세계로 밀려날 때의 공포감을 그리고 있다. 쇠창살 안과 밖의 차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쇠창살 안에 갇히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공포로 각인된다.

U병원 정신신경과³²⁾ 손영목 박사의 진단에 따르면, 윤일섭에게서는 “단순한 신경증 이상의 특이한 의식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가학성 유희욕을 즐기는 초기 분열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손영목 박사는 가학성 유희욕은 이차 병증이고, 보다 더 깊은 원인은 사람을 꺼려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서야 차분한 안정감을 갖는 일종의 ‘대인 기피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일섭은 소위 ‘선택받은 자들’인 안전한 쇠창살 안쪽인 손 박사의 치료에 거부감을 느낀다. 손 박사도 윤일섭과 마찬가지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어떻게든 안전선 안에 있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윤일섭만 비정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32) 『퇴원』에도 U병원이 나온다. 그때 자아 망실증을 앓는 인물은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황홀한 실종』에는 ‘정신신경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 그것은 때로 어떤 환자들에게서 조울증과 같은 악성신경증 질환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마침내는 정신이상에까지 이르고 마는, 그러나 신경증 환자 가운데에서는 지극히 드문 예에서만 볼 수 있는 **초기 분열 증 현상**이 분명했다.('황홀한 실종', 175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띄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패썹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판내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 버린 그 가학성 유희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황홀한 실종', 201면)

윤일섭의 은행 동료는 윤일섭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격리시켜야 안정감을 느끼는 대인기피증이라는 손 박사의 진단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윤일섭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은행의 창구로 안과 밖의 경계가 나뉘고 있으며, 창구를 내다보고 있는 윤일섭의 표정에선 자신의 직책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안도의 빛이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윤일섭에게 심상찮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창구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을 수 있게 되리라 믿었던 대리 승진자 명단에서 빠져 버린 때부터인 것 같다고 한다. 그의 대리 승진 탈락은 얼핏 납득이 되지 않는 불상사였다고 하며,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정감을 잃고 주위 동료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다. 손 박사는 그의 사람

기괴증이 가학성 유희욕 뒤에 숨어 나타나는 이차 병증인 노골적인 유희 욕망 때문이라 한다. 그의 가학성 유희욕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가학성 유희욕과 사람 기괴증을 보이는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린 대학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었지요? 우린 항상 바깥에 있었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란 날마다 그 학교 근처를 빙빙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뿐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곳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했던가를 어떻게 그토록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걸 모르겠어요.(……) 그 빌어먹을 놈의 교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철벽 같은 교문 앞엔 언제나 그 **절죽동물처럼 얼굴과 몸통을 온통 딱딱한 갑옷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우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건 참 무서운 모습이었지요.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화성인들, **어디쯤에 눈알이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화성인들**, 관절이 꺾둑꺾둑 꺾어지는 듯한 갑옷 속의 화성인들 같았으니까요. 조금도 인정머리가 없었어요. 붙잡히기만 하면 용서가 없었지요. 우리는 그 화성인들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화성인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지요. 몸이 떨리도록 말이지요. 교문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우스운 이야기지요.”(『황홀한 실종』, 184-185면)

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원 소재의 소설들에는 대학시절 데모꾼이나 시위에 관한 회상 장면이 반복적으로 삽입된다. 이 장면들은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한 그의 대학시절로 유추된다. 교문을 뛰쳐나가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 데모에 나갔지만 쇠창살 밖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케 한다. 어떻게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기도 하고 거짓 자백을 하기도 하는 등, 젊은 대학생들이 정신병자가

되어 가던 시절, 한 번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공포가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상과 비정상, 쇠창살 안과 밖은 두려움과 공포로 경계 지어진다.

윤일섭은 은행 창구에 언제나 쇠창살이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쇠창살은 없었다. 윤일섭에게만 보이는 쇠창살인 것이다. 쇠창살은 대학시절 시위현장과 감옥의 비유이다. 『황홀한 실종』은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격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욕구의 다른 표현이다. 쇠창살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비정상인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괴물로 타자화되어 정신병원에 갇힌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은행 창구 안쪽, 대학 교문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는 사회와 더 이상 소통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마치 정신병원에 갇힌 정신병자처럼 쇠창살 우리 안에 갇혀서 사회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길을 택한다. 공포 장르의 발달은 사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숨은 욕망과 무의식으로 남아 있던 죄의식이 결합되어 탄생한다. 이때 공포대상으로 현현되는 것은 바로 격리되어 타자화되어 죽은 자가 부활한 여귀이거나 살아 있으나 미친 정신병자이다. 초자연적 형상의 여귀는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첩이나 후처를 공포대상으로 각인시켰다면, 정신병자의 귀환은 유신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스템에 부적합한 이들을 불순분자, 불량자, 정신병자로 내몰아서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³³⁾

33) 푸코는 고전주의가 감금한 것은 광인과 방종자, 병자와 죄인이 뒤섞이는 추상적 비이성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수용(정신병원, 감옥, 수용소 등)은 격리와 정화의 사회적 기능에 정반대의 문화적 기능을 덧붙였다고 한다. 수용의 반동으로 인해 수용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수용의 장소는 병의 근원지이며 병을 퍼뜨리는 ‘공포’를 유발한다고 한다.(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4 3쇄, 562-571면 참조)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으로 억압되었던 정신병자는 공포영화의 주인공으로 귀환한다. 그들을 정신병자로 내몰았던 이들이 화성인과 같은 괴물이며 전깃불 공포를 제공했었는데 어느 순간, 공포에 시달리던 정신병자들이 괴물로 형상화되어 공포 코드로 등극하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빚는다. 공포 대상으로 각인되어 공포 장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중의 욕망이 서로 교묘하게 결합해야 한다. ‘정신병자’를 공포대상으로 각인시키는 데는 그들을 데모꾼으로 내몰고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았던 사회 체제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밀려 날까 봐 두려웠던 대중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청준은 『소문의 벽』에서부터 『조만득씨』에 이르기까지 전깃불 권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소문’의 주인공들이 ‘정신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돌아보게 한다.³⁴⁾

『소문의 벽』에서 박준은 자신이 미쳤다면 자기 발로 정신병원을 찾아 들어간다. 그러다 진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자 자기는 미치지 않았으니 제발 정신병원으로부터 꺼내달라고 한다. 박준에게 현실의 질서가 존재하는 정신병원 밖의 세계가 공포였다가 정신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비정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 된 것이다. 처음 괴물이었던 존재는 밖의 신문관(정신병원 의사)이었는데, 어느 순간 괴물이 정신병원 안의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³⁵⁾ 두려움의 주체였던 정신병자가 공포대상으로 객체화되어 공포 코드로 전환되

34) 『조만득씨』를 각색하여 연극으로 상연한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김명곤, 1995)는 정신분석 치료 방법의 하나인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조만득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하게 되는 과정을 다룬다. 정신이상자의 신경증에 집중되었던 관심은 1995년 연극으로 상연될 때 조만득씨와 같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로 이동한다. 그만큼 정신분석 치료 과정 자체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객관적으로 대할 여유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신분열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비정상자’, ‘위험한 자’, ‘경계대상’으로 격리되고 괴물로 간주되어, 공포 장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35) 강동호는 이것이야말로 기괴한 섬뜩함을 유발한다고 하며 프로이트의 ‘전이’로 분석하고 있다(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0, 2016.9, 389면).

는 것³⁶⁾은 바로 그 때문이다.

6. 결론: 정신병자의 귀환과 공포 코드의 형성

이청준은 ‘정신분석 치료’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시기의 모순과 충돌을 그의 소설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한국문학에서 ‘정신병원’ 치료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가는 이청준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원』, 『소문의 벽』, 『황홀한 실종』, 『조만득씨』로 이어지는 정신분석 치료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왜 정신분석 치료가 한국에서 처음에 받아들여 지기가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 환자를 공포대상으로 간주하는지, 정신병원은 왜 공포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퇴원』의 ‘나’는 위궤양 증상을 보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소문의 벽』의 박준은 스스로 미쳤으며 정신병원에 들어가 진술공포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고, 『황홀한 실종』의 윤일섭은 신경증 증세보다 더 나아가서 분열증 초기 증세를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조만득씨』의 조만득씨는 자아 분열증 증세로 더 이상 신경증이 아닌 정신병을 앓는 환자로 등장한다. 인물들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無酬價 입원환자³⁷⁾ 조만득씨는 과대망상성 정신분열증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동

36) 한국 고전소설 속 『장화홍련』은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2003)에 오면 희생자이며 원한의 여귀였던 장화는 정신병원의 정신분열증 환자로 공포대상으로 현현한다. 희생자였던 장화의 위치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이며 자기 자신의 죄의식(가해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백문임은 한국 공포영화에서 이런 여귀의 변화는 고전적인 공포영화에서 현대적인 공포영화로 바뀌는 지점으로 분석한다(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4장 한국 ‘현대’ 공포영화 부분 참조).

37) 현재 정신과 치료가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1960-1970년대는 무수가 치료 환자들이 많았다. 제 발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정부 지원 하에 거리의 행려병자나 부랑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거나 했다. 정부가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하고 무수가 환자를 입원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신경증 혹은 정신병을 앓고

반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른다. 『조만득씨』는 정신병 환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 왔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³⁸⁾ 정신병이 공포 코드로 귀환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격리시키고 경계대상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1960~1970년대 사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 세력과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길 꺼려하며 ‘소문’을 생성했던 자들은, 데모꾼, 사회 부적응자, 거리의 불량자, 사회적 약자를 ‘정신병자’로 내몰았다. 그리고 그 ‘정신병자들’은 초자연적 귀신을 밀어내고 한국 공포 코드를 형성하여 공포 장르의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1960년대 정신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³⁹⁾ 정신병자는 치료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던 것에 ‘증거’를 제공한 셈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감금 형태의 정신병원의 수용은 1960~1970년대 수많은 억압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다. 치료해서 정상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정신의학의 도입은 정신병자의 감금이나 격리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선을 그어 정신병자를 격리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정신병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비정상인 정신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은 임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많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적응자’로 분류하여 가려내는데 정신병원과의 공모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8) 『조만득씨』에서 간호원 윤지혜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조만득씨를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찬제는 윤지혜의 의문 제기는 광기에 사로잡힌 조만득씨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현실과 맞서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가에 대한 반문이며, 조만득이 현실을 외면하고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윤지혜의 말은 그 현실을 구성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우찬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불안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 33권 2호, 2005. 여름, 201-202면 참조)

39) 서양의 정신치료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30년대였지만,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임상에서 실제로 실시된 것은 6·25사변 이후였다고 한다.(이영숙·이근후, 『한국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치료 실시현황』, 『신경정신의학』, 1985, 54면)

의의 산물이고 결국 그것은 임의의 기준선 밖으로 밀려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정신병자를 범죄자로 몰아 부치는 것은 기준선 안쪽에 있는 소위 정상인들 위주의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정신분석 치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던 시기에도 ‘정신병’과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은 식민 지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정신병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정신병원은 감금 혹은 수용소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1962년 히치콕의 『사이코』가 국내에 개봉된다. ‘Psycho(사이코)’는 본래 심리를 의미하지만, 국내에서 사이코는 ‘정신병자’를 낮춰서 이르는 말로 통용된다. ‘정신분석’ 역시 정신병 환자에 대한 병리학적 ‘치료’ 의미로 국내에는 먼저 수용되었다. ‘심리’보다는 ‘정신’이라는 용어가 우세하게 들어온 것은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정신병이나 신경증 등의 정신이상자의 치료 혹은 요인 분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신이상자를 사이코라 지칭하며 가까이하기를 회피하는 대중들은,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사이코라 규정지며 ‘공포’의 이미지를 확산해 나갔다. 아파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공포대상’으로 각인시키며 철저히 배제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청준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타자화된 대상으로 정신병자 이외에도 『당신들의 천국』에서 나환자들을 들고 나온다. 백문임은 『며느리의 한』(1972)이라는 영화에서 환기하는 나환자에 대한 공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라는 서정주의 시에서처럼 예부터 내려오는 문둥이에 대한 공포는 195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다고 한다.⁴⁰⁾

이청준은 사람들이 금기시했던 정신병 혹은 전염될까봐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낸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나

40)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83-97면 「나병과 야만의 흔적」 부분 참조.

환자들이 사는 오륙도의 안과 밖은 전깃불의 공포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전깃불의 공포’는 바로 편 가르기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기인한 공포이다. 정상과 비정상, 정상인과 정신병자, 건강인과 나환자, 아군과 적군, 나와 타자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대립구도에서 나와 다른 쪽에 섰자들을 격리한다. 1960년대 타자화되어 격리된 대상은 ‘정신병자’들만이 아니다. 전염병자, 데모꾼, 사회 부적응자, 거리의 불량자들은 정상이 아닌 자로 구분되어 억압되고 감금된다.

억압되고 감금되었던 것들은 우리의 죄의식을 건드리며 공포 코드로 귀환한다. 그럼으로써 한국문학에서 전근대적인 공포를 형성했던 초자연적인 귀신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병자’로 대체된다. 정신병자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그들을 정신병원으로 내몰고 격리시킨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머리 푼 여귀 대신 ‘정신병자’에게서 섬뜩한 두려움(Unheimliche)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근대적 공포 장르인 정신분석학의 ‘공포’ 코드가 탄생하게 된다.

| 참고문헌 |

- 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씹어질 수 없는 자서전』과 『소문의 벽』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0, 2016.10, 355-401면.
-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연구』 77권, 2018, 245-271면.
- 김정관,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소설의 형식』, 『반교어문연구』 32집, 2012.2, 463-491면.
- 김희진, 『최인훈의 『구운몽』 연구- 시대 상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4집, 2016, 133-156면.
- 김주연, 『프로이트의 문학비평』, 『독일문학』 제 92집, 2004.12, 33-77면.
- 권오룡, 『어둠 속에서의 글쓰기』, 『소문의 벽』(이청준문학전집 중단편 7) 해설, 열림원, 1998, 379-391면.
- 노대원, 『1960년대 한국 소설의 심신 의학적 상상력- 서정인의 『후송』과 김승옥의 『차나 한잔』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 33집, 2014.10, 145-174면.
- 박상익, 『소설, 연극, 그리고 영화의 매체 간 서사 재현 양상 연구- 이청준의 『조만득 씨』·연극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영화 『나는 행복합니다』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 55집, 2012.8, 43-74면.
- 우찬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不安 意識 연구』, 『어문연구』 제 33권 2호, 2005. 여름, 189-212면.
- 이동식, 『정신치료자의 인격』, 『신경정신의학』 6권 1호, 1967, 19-22면.
- 이동식, 『정신분열증의 사회정신요법과 그의 평가』, 『신경정신의학』 17권 3호, 1978, 260-262면.
- 이부영·이문성, 『현대정신치료의 제문제』, 『심성연구』 11권 1·2호(통권 15호), 1996, 1-20면.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2002.12, 347-367면.
- 이영숙·이근후, 『한국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치료 실시현황』, 『신경정신의학』 24권 1호, 1985, 54-62면.
- 조두영·최종배, 『이청준 초기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퇴원』과 『병신과 머저리』를 대상으로 하여』, 『신경분석』 제 7권 1호, 1996, 3-17면.
- 조두영·하지현, 『김동인의 처녀작 『弱한 者의 슬픔』에 대한 역동정신의학적 고찰』,

- 『신경분석』 제 7권 1호, 1996, 18-31면.
- 조용래·김선태·표경식, 『신경증적 증상 환자들의 자가-불일치와 정신병리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제 35권 제 3호, 1996, 664-677면.
- 최애순, 『한국 공포의 근원, 장화홍련 서사의 의도된 권선징악』, 『우리어문연구』 57호, 2017.1, 287-318면.
- 최애순, 『최인훈 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구운몽』, 『가면고』, 『회색인』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6권, 2005, 193-216면.
- 최영환,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이동식, 『현대인과 노이로제』, 동서문화원, 1972(1976 3판 인쇄).
- 이동식,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일지사, 1974(1980 4판 인쇄).
-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여귀로 읽는 한국 공포영화사』, 책세상, 2008.
- 조두영, 『프로이트와 한국문학』, 일조각, 1999.
- 천상병, 『천상병 전집-산문』, 평민사, 1996.
- 천상병, 『천상병 시선』, 박승희 엮음,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 출판, 2004 3쇄.
- 츠베탕 토도로프, 『덧없는 행복-루소론·환상문학서설』,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1996.
- 프랑코 모레티, 『공포의 변증법』, 조형준 역, 새물결, 2014.

<Abstract>

Introduction of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 of modern fear code in the 1960s

—Conflict between insane persons' fear and psychoanalysis of
Lee Chung-jun's Novel

Choi, Ae-Soon

This study discusses how fear was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n literature, and attempts to clarify that the genre of "fear fiction" in Korean literature was weak because it was suppressed in the opposition to authentic literature. Therefore, as the second subject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return of psychosis in real literature with the introduction of psychoanalysis at the time when 'fear' seemed to disappear in Korean literature.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the introduction of "psycho analysis", or the process of introducing "psycho medicine" and literature, from the methods discussed so far in psychoanalytic criticism.

This will focus on how the introduction of psychoanalysis (psycho medicine) into the literature and the lineage of Korean "horror" has emerged from the existing researches that criticized and criticized the characters in the text. Therefore, this study presupposes that the horror object occupying the position of women's aristocratic who was represented by 'Janghua Honglian' until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oved to 'mental man' in 1950s and 1960s. In the 1960s, however, the "psychiatric" were subject to taboos and quarantines, and they began to emerge as horror codes since the 1990s and 2000s. In the 1960s, psychosis and asylum were objects of rejection, taboo, and oppression.

As Freud's death in 1956, Freud's psychoanalysis began to be introduced in the 1960s, I want to show that I am deeply involved in Korean literature. Being pointed out as a psychoanalyst or psychotic patient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could itself be a terror.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phenomenon of 'fear' disappeared from the genre of literature during the war after liberation and in the 1960s is due to the influence of 'mental analysis'. I want to show that it is hidden by symptoms that I can't. Lee Cheong-jun's *Discharge* (1965), *The Wall of Rumors* (1971), *Missing Miss* (1976), *Cho Mandeuk* (1980) I will focus on the works of the patients with mental hospitals.

Key words: 1960s, Psychoanalysis, Psychoanalysis Therapy, Lee Chung-jun, Flashlight, Fear, Psychosis, Neurosis, Psychiatric Hospital, Psychiatry, Statement Phobia, Normal, Abnormal, Isolation, *Discharge*, *Wall of Rumors*, *Missing Miss*, *Cho Mandeuk*

투 고 일 : 2019년 10월 31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